https://doi.org/10.30775/KMES.55.3.251
음악교육연구 제55권 제3호 pp. 251-278 (2026년 8월) ISSN 1229-4179 (Pri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55, No.3, (August, 2026) ISSN 2713-3788 (Online)

웨이커트 교수방법 기반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이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효과와 참여 경험 탐색

The Effects of Rhythm-Centered K-Dance Activities Based on the Weikart Teaching Method on Young Children's Sense of Rhythm and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nd an Exploration of Their Participation Experiences

여선옥*
Sunok Yeo

초록 본 연구는 웨이커트 교수방법을 기반으로 한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이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활동에 참여한 유아의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설계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만 5세 유아 20명과 주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이었다. K-댄스 활동을 위한 음악으로는 보니의 <Sunny>와 싸이의 <That That>을 선정하여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12주간 주 1회, 총 12회기에 걸쳐 K-댄스 활동을 실시하였다. 양적 자료는 고든의 PMMA 리듬 검사와 라반의 움직임 이론에 기초한 창의적 신체표현 평가도구를 활용하였고, 질적 자료는 유아와 교사 면담, 연구자 관찰기록, 영상 자료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참여 이후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질적 결과에서는 유아들이 말 리듬을 통해 리듬을 내면화하고, 움직임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신체표현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이 K-댄스라는 동시대 문화를 매개로 가정에서의 음악적 교감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웨이커트 교수방법과 K-댄스의 결합이 유아 음악교육의 교수·학습 방향으로서 유아의 리듬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을 지원하고, 나아가 음악교육의 가정 연계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웨이커트 교수방법, K-댄스, 리듬감, 창의적 신체표현, 유아 음악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rhythm-centered K-dance activities based on the Weikart teaching method on young children's sense of rhythm and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nd to explore the participating children's experiences. A singl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employed with 20 five-year-old children, one lead teacher, and one assistant teacher. Boney M.'s “Sunny” and PSY's “That That” were selected for the activities, which were conducted once a week for 12 sessions from June to August 2024.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using Gordon's (1979) PMMA Rhythm Test and a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ssessment tool based on Laban's movement theory, while qualitativ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terviews, classroom observations, and video recordings. The children's scores in sense of rhythm and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participation. Qualitative findings revealed that the children internalized rhythm through speech rhythms and created their own meaningful physical expressions through movement; these experiences extended to musical interaction at home through K-dance as a contemporary cultural medium.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grating the Weikart teaching method with K-dance can support rhythm internalization and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and contribute to connecting it with the home.

Key words: Weikart teaching method, K-dance, sense of rhythm,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unokyeo@hywoman.ac.kr
Assistant Professor, Hanyang Women's University, 200 Salgoji-gil, Seongdong-gu, Seoul, South Korea

Received: 31 May 2026, Reviewed (Revised): 30 June 2026 (12 August 2026), Accepted: 21 August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Ⅰ. 서론

유아기는 음악적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음악경험은 이후 음악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Gordon, 2003). 유아에게 음악은 단순한 청각자극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소리와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통합적 경험이다. 그중 리듬은 음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음악의 시간적 흐름을 지각하고 신체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토대가 된다. 음악교육가들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경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Jaques-Dalcroze, 1985; Orff, 2006; Weikart, 2000). 음악을 듣고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리듬감 발달뿐 아니라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으로 이어진다(Park et al., 2011; Yoon, 2018; Yun, 2012).

이러한 관점은 유아가 신체와 매체를 활용하여 소리와 리듬을 탐색하고 이를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지향과도 연결된다(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그러나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리듬과 신체표현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교사들은 음악과 무용을 포함한 예술교육 전반에서 낮은 교수 효능감과 내용 지식을 보이며(Garvis & Pendergast, 2011), 음악 수업 실행에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hrlin & Wallerstedt, 2014; Park & Yeo, 2018). 특히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는 현장에서는 유아의 자발적인 리듬 및 신체표현 놀이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확장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Cho et al., 2021; Park & Hwang, 2025).

그 결과 현장에서는 유아의 자발적 움직임을 음악적 표현으로 확장하기보다 놀이 상황을 그대로 두거나, 상업용 패키지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Noh, 2021; Shin et al., 2022). 안내된 동작의 모방 경험은 유아가 움직임의 기초를 익히는 비계가 될 수 있으나(Cho, 2007; Jo, 2024), 이러한 경험이 리듬 내면화와 자발적 변형을 거쳐 창의적 신체표현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수 원리와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교육적 소재가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이커트(P. Weikart)의 움직임 중심 교수방법은 유아가 말 리듬과 신체 움직임을 통해 박과 리듬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내면화하도록 돕는 교수 원리로 주목할 수 있다. 웨이커트 교수방법은 리듬을 말하고, 말하며 움직이고, 속삭이며 움직이고, 나아가 내적으로 생각하며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외현적 리듬 표현을 점차 내면화된 신체 반응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Jeon & Lee, 2013; Weikart, 2000). 이는 유아가 단순히 동작을 모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리듬을 신체적으로 체득하며 자신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아 음악교육에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교수 원리와 함께 요구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교육적 소재이다.

최근 유아들은 디지털 미디어와 숏폼 콘텐츠를 통해 대중음악과 댄스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며(Kang, 2024), 이러한 친숙성은 음악・동작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K-댄스는 특정 K-pop 안무를 그대로 복제하는 활동이 아니라 대중음악 기반 댄스 문화가 지닌 명료한 박 구조, 반복적 동작, 시각적 매력, 집단적 움직임의 요소를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리듬 중심 신체표현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K-댄스는 유아에게 친숙한 문화적 소재이면서도 웨이커트 교수방법의 말 리듬과 단계적 움직임 원리와 결합될 때 리듬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을 지원하는 교육적 매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웨이커트 교수방법에 기초하여 만 5세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을 적용하고 활동 참여 전후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유아가 말 리듬과 움직임을 거치며 리듬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과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창의적 신체표현을 경험하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분석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리듬 내면화 및 창의적 신체표현 경험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 그리고 만 5세의 발달 특성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beat), 박자(meter), 리듬(rhythm)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연경(Lee, 2002)에 따르면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하면 박이 되고, 그 박에 규칙적인 강세가 부여되면 박자가 되며, 박자 구조 위에서 음의 길고 짧음과 강약이 조직되면 리듬이 된다. 균등한 걸음걸이가 박이라면 그 위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이야기가 리듬에 해당한다(Kim, 2003). 리듬감은 이러한 음악의 시간적 구조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다. 유아의 리듬감은 일정박(steady beat)의 지각에서 출발하여 점차 박자와 다양한 리듬 패턴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간다(Weikart, 2000). 음악교육가들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경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Jaques-Dalcroze, 1985; Song, 2019)도 청각적 지각과 신체 반응이 생애 초기부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Phillips-Silver & Trainor,

2005)에 근거한다.

이러한 리듬 경험은 창의적 신체표현으로 이어진다. 창의적 신체표현은 음악의 흐름을 독창적인 신체 움직임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Laban, 1966), 이때 모방은 창의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된다(Rook, 2008).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은 모방을 통한 춤 경험에서 출발하여 점차 자발적 변형과 즉흥으로 확장된다(Cho, 2007; Gilbert, 2015; Theodorakou & Zervas, 2003).

리듬 인지와 창의적 신체표현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 5세경 유아는 규칙적인 박의 흐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따라가며 박자 구조에 대한 지각을 확장해 가고(Weikart, 2000), 대근육 조절 능력이 정교해지면서 동작을 스스로 변형하고 조합하는 자발적 표현이 가능해진다(Gallahue & Ozmun, 2006). 이처럼 만 5세는 기본 박과 박자 구조를 신체로 경험하는 능력과 자신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능력이 함께 발달하는 시기이다.

2. 웨이커트의 움직임 중심 교수방법

웨이커트의 움직임 중심 교수방법은 일정한 박의 지각과 신체 동작의 발달적 순서에 기초하여 리듬을 지도하는 접근으로, 유아가 신체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먼저 경험한 후 인지하도록 한다. 이는 신체 움직임을 음악 학습의 중심에 둔 달크로즈(E. Jaques-Dalcroze)의 유리드믹스 전통, 그리고 말 리듬과 신체 타악을 통해 리듬을 체득하도록 한 오르프(C. Orff)의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Jaques-Dalcroze, 1985; Kim, 2003; Song, 2019). 다만 웨이커트는 이러한 움직임 중심 전통을 이으면서도 유아가 리듬 패턴에 앞서 일정한 박을 먼저 지각하도록 하고, 신체 표현을 제자리 동작에서 이동 동작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Hohmann et al., 1995). 이는 유아가 목적 없는 모방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리듬을 조절하며 주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토대를 제공한다.

웨이커트 교수방법의 핵심은 유아가 자신의 움직임을 말로 표현하는 데서 출발하여 점차 그 언어화를 안으로 들여가며 박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전인옥과 이영(Jeon & Lee, 2013)에 따르면 유아는 교사의 챈트를 들으며 공동박에 동작을 맞추는 데서 시작하여 점차 챈트를 속삭이거나 속으로 떠올리며 스스로 박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을 거치며 유아는 소리와 신체를 통합적으로 인지하고 리듬의 기초 단위인 박을 안정적으로 내면화한다.

3. K-댄스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의 용어 사용

K-댄스의 교육적 활용을 논하기에 앞서 K-pop, K-pop 댄스, K-댄스라는 세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K-pop이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를 이르는 말이라면, K-pop 댄스는 특정 곡에 맞춰 짜인 안무를 원본 그대로 재현하는 커버(cover) 중심의 춤을 가리킨다(An, 2021).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K-댄스'는 안무를 있는 그대로 따라 하는 상업적 소비의 틀을 벗어나 대중이 즐기는 신체표현 양식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교육적 활동을 뜻한다. K-댄스는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되어 익히기 쉬우며 시각적으로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지니는데(Yu & Park, 2019), 이러한 성격 덕분에 최신곡에만 매이지 않고 유아가 평소 친숙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춤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혀 볼 수 있다.

K-댄스는 명료한 박 구조와 반복되는 동작, 시각적 매력, 그리고 함께 맞추어 움직이는 집단적 요소를 지닌다. 특히 규칙적인 4/4박의 정박 구조와 단순하게 반복되는 리듬은 유아가 몸으로 박을 익히고 리듬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Phillips-Silver & Trainor, 2005), 여럿이 함께 추는 군무는 또래와 어울려 움직이며 소통과 유대감을 쌓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은 유아의 정서적・사회적 발달과도 맞닿아 있다(Theodorakou & Zervas, 2003).

이와 같은 특성에 주목할 때, 교육적 맥락에서 재구성된 K-댄스는 기술을 숙달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유아가 즐기며 참여하는 신체표현 놀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K-댄스는 말 리듬을 통해 리듬을 몸에 새기는 과정을 바탕으로 유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신체표현을 이끌어내는 매개가 된다. 즉, 본 연구의 K-댄스는 원곡 안무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커트의 교수방법에 기반하여 박과 말 리듬을 몸으로 익히고 유아가 자신만의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가는 교육적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4. 활동 곡 선정의 배경과 특성

본 연구는 활동 곡으로 싸이(PSY)의 <That That>과 보니(M. Boney)의 <Sunny>를 선정하였다. <That That>은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주교사와 보조교사가 유아들이 선호하는 곡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Sunny>는 이와 대비되는 음악적 특성을 지닌 곡으로 댄스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선정하였다. 두 곡을 함께 활용한 것은 유아의 박 및 박자 인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아의 리듬감은 규칙적인 일정박의 지각에서 출발하여 강약 구조를 지닌 박자의 인지로 발달해 간다. 최신 K-pop 안무의 경우 복잡한 싱코페이션으로 인해 박의 흐름이 불규칙하게 분절되어 만 5세 유아가 신체를

조절하며 안정적인 박자감을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반면 복고풍 디스코 리듬에 바탕을 둔 <Sunny>는 규칙적인 4/4박자 구조가 뚜렷하여 유아가 기본 박을 몸으로 지각하고 나아가 강약이 구조화된 박자와 리듬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템포와 박자가 곡 전체에 일관되게 유지되어 유아가 박의 흐름을 예측하며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기에 유리하다. 아울러 이 곡은 외국곡이어서 가사의 의미에 기대어 표현하기보다 음악에 담긴 박과 박자에 집중하여 신체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이점이 있다. 한편 'Sunny'는 2011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는데 이 영화가 1980년대를 배경으로 삼은 만큼 부모와 교사 세대에게 그 시절의 정서를 환기하는 곡으로 다가간다. 이러한 세대 간 공감은 대중문화를 매개로 가정과 기관 사이의 정서적 교류로 이어지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빠르기와 리듬 구조를 지닌 두 곡은 유아가 안정적인 박을 익히는 동시에 다양한 리듬을 경험하도록 하여, 리듬을 몸에 새기는 일과 자발적인 창의적 표현을 함께 이끄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곡의 음악적 특성과 주요 안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Musical characteristics and choreographic features of the selected songs

Song	Musical characteristics	Main choreographic features
That That (PSY)	• 4/4 time, 120–125 BPM • Drum and bass-centered, strong beat • Cheerful, dynamic, and energetic mood	• Large-scale movements and jumps involving whole-body coordination • Powerful and energetic expression • Choreography emphasizing large muscle movements
Sunny (Boney M.)	• 4/4 time, approximately 120 BPM • Disco-based, repetitive rhythmic structure • Bright, light, and positive mood	• Hand movements using neck and shoulder isolations • Basic steps and waist movements • Choreography emphasizing gentle, expressive gestures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웨이커트 교수방법 기반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에 참여한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에 나타나는 변화와 참여 경험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수렴적 혼합연구설계(convergent parallel mixed methods design)를 적용하였다(Creswell & Plano Clark, 2018). 이 설계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병행하여 수집・분석한 뒤 두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

양적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수행하였다. 비교집단 구성이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2주간의 활동 전후에 동일한 도구로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을 측정하였다. 다만 본 설계는 외생 변인, 자연적 성숙, 반복 검사 효과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적 결과는 인과적 효과의 확증이 아니라 활동 참여 전후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같은 기간에 유아의 리듬 내면화 과정과 창의적 신체표현 경험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참여 행동,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활동 중 반응과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유아와 교사 면담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를 통합하여,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의 변화가 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해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편의표집으로 선정한 경기도 A시 소재 어린이집 만 5세 반 유아 20명이다. 참여 유아는 여아 10명, 남아 10명이며, 2024년 6월 1일 기준 평균 월령은 여아 71.6개월, 남아 72.1개월, 전체 71.9개월이었다. 활동에 참여하고 사전・사후 검사에 모두 응한 유아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양적・질적 자료 수집에 모두 포함되었다.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학급의 주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도 참여하였다. 주교사는 교육 경력 30년의 여교사로 활동 전 과정에서 유아의 참여 경험과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보조교사는 교육 경력 1년의 남교사로 활동 보조와 관찰에 참여하였다. 연구

<Table 2> Characteristics of child participants

Group	N	Mean age (months)
Girls	10	71.6
Boys	10	72.1
Total	20	71.9

<Table 3> Interview participants and their professional background

Role	Gender	N	Teaching/Professional experience (years)
Lead teacher	F	1	30
Assistant teacher	M	1	1
Total		2	

대상 유아와 면담 참여자의 특성은 각각 〈Table 2〉, 〈Table 3〉에 제시하였다.

3. 연구자의 역할

연구자는 K-댄스 활동 설계, 검사자 및 평가자 훈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총괄하였다. 실제 K-댄스 활동 지도는 연구자 개입에 따른 편향을 완화하고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K-댄스 지도 경력 16년과 9년의 댄스 전문가 2인이 담당하였다. 연구자는 매 회기 전후로 댄스 전문가와 협의하며 웨이커트 교수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참여관찰자로서 유아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현장기록으로 작성하였다.

4. 연구도구

1) 리듬감

유아의 리듬감은 고든(Gordon, 1979)의 PMMA(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리듬 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두 개의 리듬 패턴을 듣고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총 40문항, 40점 만점이다. 검사는 투톤블록(two-tone block)으로 연주한 리듬 음원을 활용하여 개별 실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리듬 지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 절차와 채점 방식은 윤은미(Yun, 2007)을 참고하였으며, 본 검사의 스피어만-브라운(Spearman-Brown) 반분신뢰도 계수는 .73으로 보고 되었다(Gordon, 1986). 검사 구성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Structure of the PMMA rhythm test(Gordon, 1979, 1986; Yun, 2007).

Component	Description
Test domain	Rhythm discrimination
Number of items	40
Stimulus format	Two rhythm patterns presented for each item
Response format	Children judged whether the two patterns were the same or different
Test administration	Individually administered using recorded audio performed with a two-tone block
Meter types	Various meters (e.g., 2/4, 4/4, 6/8, 5/8, 7/8)
Scoring	One point for each correct response (score range: 0–40)
Reliability	Split-half reliability = .73 (Gordon, 1986)

2) 창의적 신체표현력

창의적 신체표현 능력은 배현숙(Bae, 1990)가 제작하고 김은심(Kim, 1995)이 수정・보완한 창의적 신체표현 검사도구로 측정하였다(Lee, 2018). 이 도구는 라반(R. Laban)의 움직임 이론에 기초하여 동작의 다양성, 방향성, 시간성, 흐름 변화, 표현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1~5점으로 평정된다. 총점 범위는 5~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신체표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7로 보고되었다(Lee, 2018). 도구의 구성과 채점 기준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Structure and scoring criteria of the creative movement expression assessment(Lee, 2018)

Domain	Description	Score range	Cronbach′s α
Movement diversity	Number of different movement expressions produced according to the theme	1-5	
Movement direction	Number of directional changes in movement (left, right, forward, backward, up, down)	1-5	
Movement duration	Length of time the movement is sustained	1-5	
Movement flow	Continuity and variation in movement flow	1-5	
Movement expressiveness	Degree of congruence between movement and theme/content	1-5	
Total	Sum of five domains (range: 5–25)	5-25	.877

표현 과제는 이정애(Lee, 2016)의 이야기 상황(storytelling) 활용 방식을 참고하여 비(rain), 풍선(balloon), 기쁨(joy)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세 주제는 움직임의 질, 방향, 시간성, 흐름, 정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자와 평가자 3인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검사 시에는 특정 동작을 지시하지 않고 반구조화된 이야기 상황을 제시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비' 주제에서는 "저기 먹구름이 몰려오네요. 날씨가 왜 이럴까요?"와 같이 상황을 열어 주었다.

촬영된 영상은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댄스 전문가 1인이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평가자 간 일치도는 이원 혼합 모형에 근거한 급내상관계수(ICC)로 확인하였으며, 사전검사 ICC는 .85~1.00, 사후검사 ICC는 .88~1.00으로 나타났다. 평가자 간 신뢰도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Components of creative movement ability and inter-rater reliability (ICC)

Domain	Description	Rater	Pretest		ICC	Posttest		ICC
			M	*SD*		*M*	*SD*	
Movement diversity	Ability to express a theme using a variety of different movements	A	1.33	0.35	.92	1.70	0.37	.88
		B	1.42	0.30		1.83	0.37	
		C	1.43	0.30		1.80	0.29	
Movement direction	Ability to change movement directions (front, back, left, right, up, down) according to task requirements	A	1.77	0.56	1.00	2.42	0.60	.90
		B	1.77	0.56		2.64	0.47	
		C	1.77	0.56		2.49	0.49	
Movement duration	Ability to use temporal qualities such as sustained, fast, slow, strong, and light movements according to task requirements	A	1.96	0.58	.92	2.58	0.47	.92
		B	1.99	0.53		2.71	0.36	
		C	2.11	0.49		2.64	0.40	
Movement flow	Ability to use body parts continuously and flexibly, showing connection and variability between movements	A	2.72	0.85	.85	3.29	0.45	.92
		B	2.99	0.59		3.41	0.41	
		C	2.93	0.64		3.41	0.38	
Movement expressiveness	Ability to express movements consistently with the theme or task	A	4.58	0.54	1.00	5.00	0.00	1.00
		B	4.58	0.54		5.00	0.00	
		C	4.58	0.54		5.00	0.00	

5. 연구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Preparatory phase)

(1) 예비검사 (Pilot test)

본 연구에 앞서 2024년 4월, 본 연구기관과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6명(남아 3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를 통해 PMMA 리듬감 검사의 소요 시간, 유아의 집중 지속 시간, 창의적 신체표현 검사의 인원 구성, 공간 배치, 촬영 위치를 점검하고 본 검사 절차를 보완하였다.

(2) 검사자 교육 (Examiner training)

검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 연구자 1명을 대상으로 검사자 교육을 총 3회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검사 실시 절차, 환경 구성, 지시어, 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이었다. 교육을 이수한 보조 연구자는 두 검사의 실시 전반과 유아 면담 과정에 보조로 참여하였다.

(3) 평가자 훈련 (Rater training)

창의적 신체표현 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 훈련을 총 2회 실시하였다. 평가자들은 예비검사 영상을 함께 검토하며 하위영역별 채점 기준을 공유한 뒤, 본 연구 자료를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4) 댄스 전문가 협의 (Consultation with dance experts)

K-댄스 활동 구성을 위해 댄스 전문가 2인과 2024년 5월 첫 주부터 약 한 달간 총 3차례 협의하였다. 협의에서는 연구 목적, 만 5세 유아의 발달 수준, 곡별 동작 난이도, 웨이커트 교수 절차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각 회기 활동이 기본 박(beat) 지각에서 박자(meter) 경험과 리듬 패턴의 내면화로 확장되고, 창의적 신체표현 요소와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나아가 활동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댄스 전문가 2인이 각각 <Sunny>와 <That That>의 안무 및 교수 지도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였다.

2) 사전검사 (Pretest)

사전검사는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리듬감 검사는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조용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아 한 명당 약 20~25분이 소요되었다. 검사 중 유아가 피로를 호소하거나 휴식을 요청할 경우 일시 중단한 뒤 재개하였다. 검사 과정은 녹음하였고, 연구자가 녹음 자료를 두 차례 확인하여 채점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창의적 신체표현 검사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아 4명씩 소그룹으로 실시하였다. 각 그룹의 소요 시간은 약 20~30분이었다. 유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재・교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몰입을 돕기 위해 배경음악을 제공하였다. 모든 수행 과정은 태블릿 PC로 촬영하였다. 같은 기간에 유아의 활동 참여 이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교사와 보조교사 사전 면담은 2024년 5월 2일에 진행하였다.

3) K-댄스 활동

활동에 사용된 음악은 보니의 <Sunny>와 싸이의 <That That>두 곡이다. 곡 선정의 배경과 음악적 특성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하였으며(Ⅱ장 4절 참조), 주요 안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K-댄스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주 1회, 총 12회기로 운영하였다. 전기 1~6회기는 <Sunny>를, 후기 7~12회기는 <That That>을 활용하였다. 두 곡의 음악적 성격과 안무는 다르지만, 준비운동, 주요 활동, 정리 활동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조와 웨이커트 교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준비운동에서는 아이솔레이션과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를 이완하였다. 주요 활동에서는 웨이커트 교수방법에 따라 말하기(Say), 말하면서 행동하기(Say and Do), 속삭이면서 행동하기(Whisper and Do), 생각하면서 행동하기(Think and Do)의 순서로 말 리듬을 활용하여 동작을 익히고, 이를 음악에 맞춘 신체표현으로 확장하였다. 정리 활동에서는 수축과 이완 중심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였다. 회기별 진행 구조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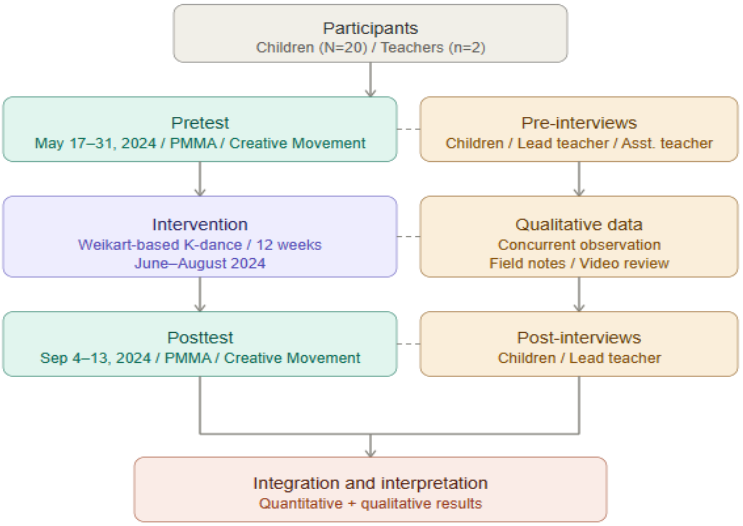
<Table 7> Structure of the K-dance sessions based on the Weikart teaching method

Phase	Weikart teaching stage	Session-by-session content	Basic movement (common to all sessions)	Duration
Warm-up	-	Isolation of neck, shoulders, arms, waist, knees; contraction–relaxation stretching	-	7-8 min
Main activity	Session 1 · Say	Listening and sharing feelings about the music; free physical expression; learning part of the choreography through speech rhythm while observing the teacher's demonstration	• Movement activities using rhythm-making • Wave and roll using isolation • Locomotor movements (forward, backward, left, right) • Turns (switch, step turn) • Jump movements	12–15 min
	Sessions 2–3 · Say and Do	Learning the choreography with speech rhythm		
	Session 4 · Whisper and Do	Connecting the choreography with whispered speech rhythm		
	Session 5 · Think and Do	Transition from whispered movement to silent movement		
	Session 6 · Think and Do	Dancing to the music; creating one's own expression		
Cool-down		Contraction–relaxation stretching		4–5 min

4) 사후검사 (Posttest)

사후검사는 활동 종료 후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동일한 도구, 절차, 환경을 적용하여 측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같은 기간에 유아 개별

면담과 주교사 및 보조교사 면담을 실시하여 활동 참여 경험과 변화 양상을 수집하였다. 전체 연구 절차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dure

6. 자료수집 및 분석

1) 양적 자료 분석

양적 자료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수집된 리듬감(PMMA) 점수와 창의적 신체표현점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활동 전후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화의 실질적 크기를 참고하기 위해 Cohen's d를 산출하였다. 창의적 신체표현 점수는 평가자 3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평가자 간 신뢰도는 ICC로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Statistics 29.0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 = .05$로 설정하였다.

2)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 자료는 유아와 교사 면담, 연구자 관찰기록, 영상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에는 활동 전후의 정식 면담과 활동일에 교사와 나눈 비형식적 대화를 포함하였으며, 비형식적 대화는 가능한 한 즉시 현장기록으로 정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브라운(V. Braun)과 클라크(V. Clarke)가 제안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Braun & Clarke, 2006). 먼저 전사 자료와 관찰기록을 반복해 읽으며 전체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후 유아의 말과 행동, 교사의 진술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여 48개의 초기 코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코드를 통합하여 14개의 대표 코드와 4개의 하위범주로 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범주 간 관계와 전체 자료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리듬의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의 경험'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질적 분석의 신뢰성은 링컨(Y. Lincoln)과 구바(E. Guba)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였다(Lincoln & Guba, 1985). 관찰기록, 유아 면담, 교사 면담, 사전・사후검사 기록을 교차 분석하여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교육학 박사 1인과 유아음악교육 전문가 1인이 참여한 3회의 동료 검토를 거쳐 주요 코드와 범주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코딩표를 확정하였다. 분석 내용의 현장 적합성은 교사와의 이메일 확인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연구자는 매 활동 직후 일지를 작성하여 해석이 유아의 실제 발화와 행동에 근거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7. 연구윤리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당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하였다. 연구 시작 전 기관장, 주교사, 보조교사의 참여 동의를 확인하였고, 참여 유아 20명의 보호자 전원에게 연구 목적, 활동 내용, 자료 수집 방법과 활용 범위를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유아에게도 활동 참여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연구 진행 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면담・관찰・영상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하였고, 논문 작성 시 유아는 알파벳 코드로, 교사는 역할명으로 표기하였다. 특히 영상 자료는 연구 분석에 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외부 공개나 연구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

<Table 8> Coding scheme of qualitative analysis

Theme	Sub-category	Code	Raw data
Internalization Of rhythm	Formation of a stable sense of beat	From perceiving sound to expressing the beat	“Counts ‘one, two, three, four’ and taps the beat or echoes the rhythm aloud when hearing sounds” (Observation)
		Entrainment to the beat in everyday play	“Changes the speed of head-nodding to match the beat when the song changes” (Observation)
		From irregular to stable beat	“Their counting sounded irregular at first, but it became stable and regular” (Lead teacher)
	Acquisition of Movement through speech rhythm	Learning choreography via speech rhythm	“Even when the movements are not perfect, they quickly learn the sequence by putting it into words” (Lead teacher)
		Recalling movement through speech rhythm	“Saying ‘up, pop!’ and moving my hands like this” (Child)
		Internalizing speech rhythm (silently)	“It's not hard at all if I say it inside my head” (Child)
		Teaching peers through speech rhythm	“Teaches peers the beat and tempo with speech rhythm, like a dance teacher” (Lead teacher)
Experience of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Giving meaning to physical expression	Embedding one's own meaning in movement	“The rain comes sideways because of the wind” / “Being sad because I don't like rain” (Child)
		Extending meaning to space and peers	“Interprets walls and the ceiling as places where balloons stick; suggests ideas to peers” (Observation)
		From meaning to narrative	“Simple meanings gradually grew into stories” (Assistant teacher)
	Active attempts toward original expression	Expressing in one's own way	“Makes the same movement bigger and bolder, controlling facial expression and breathing to stand out” (Observation)
		Adapting what one has seen and heard	“Can I do this? I saw it on TV” (Child)
		Expressing through props and objects	“Taps blocks on the floor to make rain sounds; strokes shelves and desks to express joy” (Observation)
		Joy of dancing together	“Dancing together is better and makes me happy” (Child)

Ⅳ. 연구결과

1.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양적 효과

1) 유아의 리듬감 변화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참여 전후 유아의 리듬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유아의 리듬감 검사 점수는 사전 평균 24.65(*SD* = 5.37)에서 사후 평균 29.15(*SD* = 4.38)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90$, $p < .01$). Cohen's *d*는 .92로 산출되었다. 이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와 소수 표본의 한계를 고려할 때,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참여 이후 유아의 리듬감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Table 9> Effects of K-dance activity on children's rhythm aptitude

Time	N	*M*	*SD*	*t*	*Cohen's d*
Pretest	20	24.65	5.37	2.90**	.92
Posttest	20	29.15	4.38		

**$p < .01$

2)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변화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참여 전후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동작의 다양성은 사전 1.39(*SD* = 0.30)에서 사후 1.77(*SD* = 0.31)로 높아졌고($t = 4.00$, $p < .001$), 동작의 방향성은 사전 1.77(*SD* = 0.56)에서 사후 2.52(*SD* = 0.48)로 높아졌다($t = 4.50$, $p < .001$). 동작의 시간성은 사전 2.02(*SD* = 0.50)에서 사후 2.64(*SD* = 0.39)로($t = 4.41$, $p < .001$), 동작의 흐름 변화는 사전 2.88(*SD* = 0.62)에서 사후 3.37(*SD* = 0.39)로($t = 3.03$, $p < .01$), 동작의 표현성은 사전 4.58(*SD* = 0.54)에서 사후 5.00(*SD* = 0.00)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 = 3.50$, $p < .01$). 전체 점수도 사전 12.64(*SD* = 2.08)에서 사후 15.30(*SD* = 1.21)으로 높아졌으며($t = 4.96$, $p < .001$), Cohen's *d*는 1.57로 산출되었다. 다만, 비교집단이 없는 단일집단 자료에 근거하므로 이 결과는 활동만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 활동 참여 이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 가능성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Table 10> Effects of K-dance activity on children's creative movement expression

Domain	Time	*N*	*M*	*SD*	*t*	*Cohen's d*
Movement diversity	Pretest	20	1.39	0.30	4.00***	1.25
	Posttest	20	1.77	0.31		
Movement direction	Pretest	20	1.77	0.56	4.50***	1.44
	Posttest	20	2.52	0.48		
Movement duration	Pretest	20	2.02	0.50	4.41***	1.38
	Posttest	20	2.64	0.39		
Movement flow	Pretest	20	2.88	0.62	3.03**	0.95
	Posttest	20	3.37	0.39		
Movement expressiveness	Pretest	20	4.58	0.54	3.50**	1.10
	Posttest	20	5.00	0.00		
Total	Pretest	20	12.64	2.08	4.96***	1.57
	Posttest	20	15.30	1.21		

**$p < .01$, ***$p < .001$

2.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리듬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 경험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경험은 '리듬의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의 경험'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1) 리듬의 내면화

(1) 안정적인 박 감각의 형성

유아들은 K-댄스 활동에서 동작을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음악의 박을 점차 안정적으로 지각하고 신체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 사전검사에서 유아들은 들려오는 소리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리듬 소리가 들리면 "하나, 둘, 셋, 넷" 말하며 박을 타거나, 들리는 리듬을 소리로 따라 표현하였다(연구자 관찰기록, 2024. 9. 5.).

이는 유아들이 리듬 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박을 느끼며 몸으로 반응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리듬감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향상된 양적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박에 몸을 맞추는 모습은 검사 장면에 그치지 않고 자유놀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 자유놀이 시간, B유아는 흘러나오는 곡의 박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였고 곡이 바뀌어 박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끄덕이는 속도를 바꾸었다. 때로는 어깨와 팔을 흔들거나 엉덩이를 들썩이며 박을 타기도 하였다(연구자 관찰기록, 2024. 7. 10.).

B유아가 곡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박에 맞추어 끄덕임의 속도를 바꾸고 어깨와 팔, 엉덩이로 박을 탄 모습은 특정 곡에 익숙해진 결과가 아니라 음악 속에 흐르는 박을 스스로 찾아 몸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블록놀이에 몰입해 있으면서도 몸이 박을 좇고 있었다는 점에서 K-댄스 활동에서 경험한 박을 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일이 유아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교사도 유아들이 놀이 중 스스로 박을 세며 움직임을 조절하는 변화를 관찰하였다.

> 놀이 중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춤을 추거나 신체표현을 하며 '하나, 둘, 셋, 넷' 하고 박을 세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이 카운팅이 불규칙하게 들리더니 어느새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더라고요(주교사 면담, 2024. 9. 13.).

주목할 점은 유아들이 외부의 음악에 몸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세는 규칙적인 박에 자신의 움직임을 맞추어 갔다는 것이다. 초기의 불안정한 박이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형성해 갔다는 점은 K-댄스 경험을 통해 박 감각이 유아 안에 자리 잡아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2) 말 리듬을 통한 동작의 습득

말 리듬(speech rhythm)은 언어에 내재된 리듬적 특성을 활용하여 유아가 음악적 리듬을 보다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방법이다(Ko & Lee, 2018). 본 활동에서



[Figure 2] Examples of Speech Rhythm

유아들은 <Sunny>의 '물결물결', <That That>의 '앞으로 나가며 빵빵빵빵'과 같이 말 리듬과 동작을 연결하며 안무를 익혔다.

주교사는 유아들이 실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말 리듬으로 안무의 순서를 빠르게 익혔다고 하였다.

> 유아들이 동작을 하지 않아도 동작을 일정한 박에 맞춰 말로 옮기는 것을 하루 일과 속에서 노래 부르듯이 자주 해요. 그래서 실제 표현은 조금 부족해도 순서와 몸의 움직임은 모두 빨리 익히더라고요(주교사 면담, 2024. 9. 13.).

이러한 모습은 유아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되었다.

> 연구자: 춤출 때 재미있었던 동작이 있었나요?
> C유아: (두 손을 모아 한 바퀴 돌린 후 한 손으로 하늘을 찌르는 포즈를 취하며) 음 '위로 뽕'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요.
> 연구자: 말하면서 춤추는 것 힘들지 않았어요?
> D유아: 아뇨 재미있었어요.
> 연구자: 말 안 하고 춤추면 어떨 것 같아요?
> E유아: 음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C, D, E 유아 면담, 2024년 9. 11.).

C유아가 '위로 뽕'이라는 말 리듬으로 동작을 떠올려 표현하는 모습은 말 리듬이 동작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 리듬은 소리 내어 읊는 데 그치지 않고, 점차 내면화되기도 하였다.

> 연구자: 말하지 않고 음악만 듣고 춤을 출 때 어렵지 않았나요?
> G유아: 음... 아니요. 속으로 말하면서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 (G 유아 면담, 2024. 9. 11.)

말 리듬은 또래에게 동작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도 활용되었다.

> 평소에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한 유아는 자신이 댄스 선생님인 것처럼 말 리듬으로 박과 템포를 알려주면서 춤 동작을 가르쳐주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 (주교사 면담, 2024. 8. 28.)

이는 말 리듬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유아가 동작을 기억하고 조절하며 타인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2) 창의적 신체표현의 경험

(1) 신체표현에 대한 의미 부여

활동 초기 유아들은 안무를 정확히 따라 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활동이 반복되면서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의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창의적 신체표현 사후검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자: 똑! 똑! 어~~ 뭐지. 애들아 비가 내리려나봐. 비가 어떻게 내릴까요?
F유아: (머리와 몸을 옆으로 흔들며) 선생님 비가 바람이 불어서 옆에서 와요.
G유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뛰며) 야~~ 비가 와 우와~~~
H유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음) 비 오는 게 싫어서 슬퍼하는 거예요.
(창의적 신체표현 사후검사, 2024. 9. 4.)

F유아는 바람의 방향을, G유아는 비를 피하는 역동적 상황을, H유아는 정지된 동작 안에 감정을 담아 표현하였다. 즉 유아들은 신체표현을 단순한 동작 재현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의미 부여는 또래와 공간으로도 확장되었다. '풍선' 주제에서 유아들은 벽과 천장을 풍선이 붙는 공간으로 해석하였고 표현을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표현할 의미를 제안하였다.

연구자: 이번에는 우리가 '풍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풍선이에요?
Q유아: (한쪽 벽에 붙으며) 얘들아, 나 여기 붙었어! (벽에 붙은 풍선을 표현한다.)
R유아: (제자리에서 점프하며) 난 천장에 붙을 거야! (천장으로 올라가는 풍선을 표현한다.)

한편, L유아는 자신만의 풍선이 떠오르지 않는 듯 친구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K유아: (L유아 곁으로 다가오며) L야, 너도 해 봐. 조용한 풍선 해 봐!
R유아: 그래, 바람 빠지는 작은 풍선 해 봐.
Q유아: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진짜 커다란 풍선 만들자!
유아들(다 함께): 바람이 들어간다~ 후~! 후~! (손을 잡은 채 원을 크게 넓히며 둥글게 뛴다.)
P유아: 이제 바람 빠진다! 쉭~~~! (유아들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한 명씩 손을 놓고 바닥으로 주저앉는다. L유아도 친구들과 함께 표현에 참여한다.)
(창의적 신체표현 사후검사, 2024. 9. 4.)

이 장면은 유아의 신체표현이 개인의 움직임에 머물지 않고 공간 해석, 또래 제안, 공동 표현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보조교사의 면담에서도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신체로 뭔가를 표현하면서 '선생님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표현을 설명해줘요. 단순한 의미 부여에서 점차 이야기가 생기더라구요. (보조교사 면담, 2024. 8. 7.)

이 면담에서 주목할 점은 유아의 의미 부여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사에서도 유아들의 동작이 특별히 세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몸으로 다 담지 못한 것을 언어로 채우며 자신의 표현을 전하고자 하였다. 이는 창의적으로 표현하려는 도전이 유아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독창적 표현을 향한 시도

유아들은 자신의 신체표현에 의미를 담는 것을 넘어, 좀 더 독창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 출발은 안무에 익숙해지면서 생긴 표현의 여유와 자신감이었다.

활동이 반복되면서 유아들은 안무에 상당히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신체표현에 여유가 생기자 같은 동작이라도 더 크게, 더 과감하게 표현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 표정과 호흡까지 의식적으로 조절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돋보이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연구자 관찰기록, 2024. 8. 21.)

이러한 모습은 개별 유아의 면담에서도 확인되었다. 유아들은 동작을 잘 따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을 갖고자 하는 바람과 이를 이루려는 자발적 노력을 드러냈다.

연구자: 춤출 때 어떤 게 어려웠어요?
I유아: 음~~ (댄스)선생님이 멋지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중략)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양손을 볼에 가져다 대고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선생님 나도 이렇게 할까요?' (I유아 면담, 2024. 9. 6.)

I유아가 "멋지게 하라"는 요청을 어려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텔레비전에서 본 동작까지 떠올려 자신의 춤에 넣어 보려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유아가 만들어 낸 표현이 온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멋지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방법을 찾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유아들은 남과 다른 자신만의 표현을 갖고자 하는 바람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춤에 가져와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자신만의 표현을 만들려는 시도는 몸동작에 머물지 않았다. 유아들은 교실의 물건이나 옷차림을 활용해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만들어 가려 하였다. 한 유아가 <Sunny>의 분위기에 맞는 복고풍 의상을 입고 오자(연구자 관찰기록, 2024. 6. 19.), 또래들이 관심을 보였고 이후 다른 유아들도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확

산은 매주 활동 후 이루어진 교사와의 비형식적 대화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사들은 춤출 때 손목에 스카프를 매어 달라는 유아가 있었고, <That That>의 총 쏘는 동작에서는 블록으로 총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 손에 들고 추고 싶어 하는 유아도 있었다고 전하였다. 나아가 유아들이 평소 놀이에서 자발적으로 춤을 출 때에도 소품을 자연스럽게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놀이 속에서 나타나던 소품 활용은 창의적 신체표현 검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두 검사에서 유아들의 모습은 뚜렷이 달랐다.

> 사전검사에서는 아무도 소품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블록으로 땅을 두드려 빗소리를 내거나, 기쁨을 표현하며 교실의 벽과 책상, 교구장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구자 관찰기록, 2024. 9. 4.)

소품을 쓸 수 있는 조건은 사전과 사후가 같았지만, 유아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일상에서 소품을 활용하던 모습이 검사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한 놀이가 아니라 자기만의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된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유아들은 교실의 물건을 자기표현의 일부로 삼으며 몸을 넘어 주변의 사물로까지 표현을 넓혀 갔다. 이처럼 유아들은 의미를 담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려 애쓰며 창의적 신체표현을 확장해 갔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의 바탕에는 함께 춤추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었다.

> 연구자: 춤을 추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 K유아: 기분이 좋아져요.
> 연구자: 그런데 춤이 멋지게 잘 안될 때는 어때요?
> K유아: 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 연구자: 왜 그럴까요?
> K유아: 춤은 잘 못해도 재미있게 하는 거니까 기분 좋게 추면 돼요.
> 연구자: 그럼 친구들과 함께 추는 것과 혼자 추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아요?
> K유아: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요.
> 연구자: 왜 그렇죠?
> K유아: 춤은 같이 추는 게 더 좋고 행복하니까요. 행복하려고 춤을 추는 거예요.
> (K유아 면담, 2024. 9. 9.)

K유아에게 춤은 잘 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잘 못해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다. “행복하려고 춤을 춘다”는 말에는 표현의 완성도보다 표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유아들은 K-댄스 활동을 통해 움직임에 의미를 담고, 소품과 공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즐겁게 표현을 확장해 갔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웨이커트 교수방법 기반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참여 전후 만 5세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 변화를 분석하고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리듬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 경험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참여 이후 유아의 리듬감 점수는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질적 자료에서도 박 감각과 말 리듬의 내면화 과정이 확인되었다. 유아들은 처음에는 박을 불규칙하게 짚었으나 점차 안정된 박 위에서 몸을 움직였고 자유놀이에서도 배경음악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작을 말 리듬으로 먼저 표현하고 점차 속으로 떠올리며 움직인 과정은 웨이커트가 제시한 말하기, 말하며 행동하기, 속삭이며 행동하기, 생각하면서 행동하기의 순서와 맞닿아 있다(Weikart, 2000). 이는 말 리듬이 유아의 리듬 경험을 언어와 신체 움직임으로 연결하고 박 감각을 내면화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ang, 2016; Ko & Lee, 2018).

둘째, 창의적 신체표현 점수 역시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질적 자료에서는 유아들이 안무 재현을 넘어 자신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아들은 ‘비’, ‘풍선’, ‘기쁨’과 같은 주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몸으로 다 담지 못한 의미를 언어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소품, 공간, 또래 제안을 활용하며 표현을 확장하였다. 이는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이 완성도 높은 산물보다 표현하려는 의지와 시도에서 출발하며, 신체 움직임과 도구 활용이 표현의 폭을 넓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Lee, 2018; Park et al., 2011; Shin, 2018).

또한 창의적 신체표현 활동이 유아의 또래 관계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보고(Gim et al., 2014; Jin & Choi, 2018)에서 확인되듯,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에게 창의적 표현은 잘 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즐기고 나누는 경험이 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리듬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의 변화는 웨이커트 교수방법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말 리듬, K-댄스의 친숙성과 흥미, 유아의 선호, 교사와 댄스 전문가의 협력, 또래 상호작용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웨이커트 교수방법은 유아가 박과 리듬을 말하고 움직이며 내면화하도록 돕는 구조를 제공하였고, K-댄스는 유아에게 친숙한 대중문화적 소재로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매개가 되었다. 대중적 춤 활동이 유아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와 연결되며(Shen et al., 2020), 음악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경험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박은희 외(Park et al., 2011)의 보고와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That That> 선정 과정에 유아의 선호가 반영된 점은 활동에 대한 몰입과 주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익숙한 대중음악 기반 움직임은 유아가 표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자신의 방식으로 동작을 변형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K-댄스 활동을 통한 음악적 경험은 활동 시간 안에 머무르지 않고 또래 관계와 일상 놀이로 확장되었다. 유아들은 활동 중 익힌 말 리듬과 움직임을 놀이 속에서 사용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춤을 또래에게 알려주며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K-댄스는 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또래와 공유하고 조율하는 음악적 놀이가 되었다. 또한 <Sunny>는 일부 부모와 교사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로 작용하여, 유아가 곡의 분위기에 맞는 의상을 준비해 오는 등 가정의 관심과 지원이 활동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대중문화 기반 음악활동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음악적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K-댄스 활동이 상업적 미디어나 사교육의 안무 모방과 구별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나 사교육의 K-댄스가 정형화된 동작 복제와 기술적 완성에 치우칠 경우, 유아는 수동적 모방에 머무르기 쉽다. 반면 본 연구에서의 K-댄스 활동은 말하기에서 생각하기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통해, 유아가 음악의 박과 리듬을 몸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의미를 담아 표현하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웨이커트 교수방법의 절차는 교사가 전문적인 안무 수행 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말 리듬, 박 세기, 움직임 언어화와 같은 방식으로 유아의 음악적・신체적 표현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유아의 자발적 음악・움직임 놀이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음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은 대근육 발달이 활발한 유아기에 넓은 공간이나 기구 없이도 적합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가 표현을 스스로 조절하고 또래와 나누는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Gim et al., 2014; Park et al., 2011).

종합하면, 웨이커트 교수방법 기반 리듬 중심 K-댄스 활동 참여 이후 만 5세 유아의 리듬감과 창의적 신체표현 점수는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질적 분석에서는 유아들이 말 리듬과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의미를 담은 신체표현을 시도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K-댄스를 단순한 대중문화 모방 활동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재구성된 리듬 중심 음악교육 활동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웨이커트 교수방법과 결합하여 리듬 내면화와 창의적 신체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데 있다. 또한 유아의 일상문화, 또래 상호작용, 교사 지원과 가정 연계의 가능성이 음악교육 경험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이루어져, 관찰된 변화가 K-댄스 활동만의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대상이 특정 기관의 만 5세 유아 20명에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활동 종료 이후의 지속효과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포함한 설계, 다양한 연령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 활동 종료 후 지속효과 검증을 통해 리듬 중심 K-댄스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n, C. Y. (2021). Qualitative Study using k-pop dance in school dance class: focusing on dance art instructors. *The Southeast Korea Dance Society, 9*(2), 65-89. https://doi.org/10.23003/skds.2021.9.2.004

Bang, E. Y. (2016). The effects of speech rhythm activities through creative bodily expression on young children's language ability. *Journal of Arts Education Research, 14*(4), 97-111.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Cho, E. J., Kim, M. J., & Kim, N. Y. (2021).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and support needs in the experience of implementing child- and play-centered art education: Focusing o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4), 107-132. https://doi.org/10.30761/ecoece.2021.20.4.107

Cho, E. Y. (2007). Influence of dance education on infant's creativity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5*(2), 79-91.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8).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3rd ed.). SAGE.

Ehrlin, A., & Wallerstedt, C. (2014). Preschool teachers' skills in teaching music: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12), 1800-1811.

Gallahue, D. L., & Ozmun, J. C. (2006). *Understanding motor development: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6th ed.). McGraw-Hill.

Garvis, S., & Pendergast, D. (2011). An investig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 self-efficacy beliefs in the teaching of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12*(9), 1-15.

Gilbert, A. G. (2015). *Creative dance for all ages* (2nd ed.). Human Kinetics.

Gim, S. M., Lee, T. S., & Choi, Y. M. (2014). The effect of the physical expression activities connected to dancing appreciation on self-regulation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357-379.

Gordon, E. E. (1979).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as measured by 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Psychology of Music, 7*(1), 42-49.

Gordon, E. E. (1986). *Manual for 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and the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GIA.

Gordon, E. E. (2003). *A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GIA.

Hohmann, M., Weikart, D. P., & Epstein, A. S. (1995). *Educating young children: Active learning practices for preschool and child care programs*. High/Scope Press.

Jaques-Dalcroze, E. (1985).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F. Rothwell, Trans.). Ayer Company.

Jeon, I. O., & Lee, Y. (2013). *Movemen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Jin, X. Y., & Choi, Y. C. (2018). The effects of the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ctivity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0*(3), 249-270. https://doi.org/10.15409/riece.2018.20.3.11

Jo, A. H. (2024). *The effect of infant dance programs o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tor creativity.*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Kang, E. J. (2024, April 4). Rising rates of short-form content viewing among children: the need for national media-use guidelines. *Newspaper and Broadcasting, 4*(April), 52-55.

Kim, J. Y. (2003). *Rhythmic sense enhancing education model for child: Focus on Carl Orff's Schulwerk*.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 J. M., & Lee, Y. K. (2018). The teaching approach utilizing speech rhythm in music. *Research in Music Pedagogy, 19*(2), 1-30.

Laban, R. (1966). *Choreutics.* Macdonald & Evans.

Lee, E. J. (2018). *Effects of the outdoor-play-based STEAM program on young children's abilities of scientific inquiry,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Lee, J. A. (2016).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n early childhood movement education program using storytelling.*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e, J. A. (2018). The effect study of movement activities utilizing Korean traditional children song on young children’s rhythmic sense and body expression ability.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2), 281-294. https://doi.org/10.22143/HSS21.9.2.23

Lee, Y. K. (2002). The study on various teaching techniques to promote rhythmic sensitivity of children: Emphasis on the concept and the typ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2,* 105-152.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play understanding material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h, S. H. (2021). Teachers' awareness and practice of child and play-centered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with a focus o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1269-129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1269

Orff, C. (2006). *Carl Orff · The Schulwerk* (Y.-J. Kim, Trans.). Eumaksegye.

Park, C. H., & Hwang, J. S. (2025). Chang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ince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Focusing on interviews with in-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10*(2), 1-29. https://doi.org/10.52384/JECEC.2025.10.1.1

Park, E. H., Chung, C. H., & Choi, H. J. (2011). The effects of music activity program based body movement on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4), 235-258.

Park, S. K., & Yeo, S. O. (2018). Exploring experiences and meanings emerging from a music teaching plan and practice by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08*, 123-145. https://doi.org/10.37918/kce.2018.01.108.123

Phillips-Silver, J., & Trainor, L. J. (2005). *Feeling the beat: Movement influences infant rhythm perception.* Science, *308*(5727), 1430.

Rook, L. (2008). *Imitation in creative task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the Netherlands.

Shen, Y., Zhao, Q., Huang, Y., Liu, G., & Fang, L. (2020). Promotion of street-dance training on the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11*, 585598.

Shin, E. J. (2018). *The effects of physical expression activities through storytelling on young children's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bility and topological space concept.*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Shin, Y., Kim, E., & Moon, S. (2022).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nd its impact on movement education: A stud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6*(5), 109-137. https://doi.org/10.32349/ECERR.2022.10.26.5.109

Song, J. G. (2019). Shaping of the ideas of Jaques-Dalcroze, Kodály and Orff on rhythmic education through corporeal move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3), 103-127. https://doi.org/10.30775/KMES.48.3.103

Theodorakou, K., & Zervas, Y. (2003). The effects of the creative movement teaching

method and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Sport, Education and Society, 8*(1), 91-104.

Weikart, P. S. (2000). *Round the circle: Key experiences in movement for young children.* High/Scope Press.

Yoon, J. Y. (2018). The effect of singing activity based on the rhythm element on a preschool child's musical interest and self-regulation abi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3), 97-119. https://doi.org/10.30775/KMES.47.3.05

Yu, J. M., & Park, S. J. (2019). K-Pop girl group dance movement classification systems and visualization implementation. *Korean Journal of Dance, 19*(2), 25-36. https://doi.org/10.26743/kaod.2019.19.2.003

Yun, E. M. (2007). *The construction and effect of an integrated early childhood music and movement program based on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Yun, E. M. (2012). The effects of instruments activities applied rhythm pattern and rhythm chant on early children's rhythm aptitude and music expression a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1), 49-68.